




창요

월간건설신문

Email : khong3000@gmail.com Tel : 021-3002-9090
광고문의 : 0821-1122-8827, 0815-1066-5868

VOL. **70**
2022 / 10

OK컨설팅 

건설면허1달 완성

인허가/비자/세무/부동산/여행사
사무실 연락처 : 021)7504-578
한국인 연락처 : 0852-8185-5551



재인도네시아 한국 건설협의회
THE ASSOCIATION OF KOREAN CONTRACTORS IN INDONESIA

신산업분야 주요 파트너 국가로 떠오른 '인도네시아'



‘한-인니 미래 신산업 비즈니스 플라자 2022’ 행사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페어몬트 호텔에서 열린다.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미래 신산업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는 KOTRA는 한-인니 CEPA 및 RCEP의 인도네시아 비준을 모멘텀으로 활용, 무역적자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의 일환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미래 신산업에서의 한국의 기회를 선점한다는 전략이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국가다. 풍부한 석탄, 원유,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는 자원부국이기도 하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소재인 니켈 세계 1위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 높은 소비력, 발전가능성 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국회가 한-인니 CEPA 및 RCEP*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양국 간 통상환경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첫 세션인 포럼에서 이종섭 KOTRA 동남아대양주지역 본부장이 개회사로 시작을 알린다. 아구스 차하야나(Agus Tjahajana Wirakusumah) 인니 에너지부 장관 특별보좌관의 환영사, 박태성 주인도네

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대사와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M. Vega) 인니 상공회의소 부회장의 축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탄소중립(에너지), 보건 의료, 디지털 등 미래 신산업별 양국의 정책결정자와 전문가, 대표 협력 사례 보유 우리 기업들이 연사로 참여해 ▲한-인니 호혜적 협력 파트너십 방향과 의의 ▲미래 신산업별 트렌드 및 전망과 협력 기회 ▲우리 기업들의 우수 협력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양국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기초연사인 신윤성 산업연구원 박사는 “한-인니 CEPA 비준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양국 간 협력체계를 만들 것이다. 한국은 코로나19 시기에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2차 전지와 같은 첨단 산업에 중단 없이 투자했으며, ESG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쇼케이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전기차(EV), 에너지, 의료기기, 디지털 콘텐츠 분야 등 국내 혁신 기술기업 48개사가 참가해 제품 기술 전시 및 인도네시아 유력기업, 프로젝트 발주처, 벤처 캐피탈 등 잠재 협력 파트너 85개사와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한다. 산업일보

달라진 한국 · 인도네시아 관계... 국경일 행사에 장관만 5명 참석

“어느 때보다 견고” ...대형 비빔밥 만들며 우정 다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이례적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장관 5명이 참석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양국 관계를 보여줬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더 웨스틴 자카르타 호텔에서 개천절을 기념해 국경일(National Day)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우리의 부총리급인 아이들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을 비롯해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장관과 티토 카르나피안 내무장관, 바수키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장관, 부디 카르야수마디 교통장관 등 장관만 5명이 참석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일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외교부가 주빈으로 참석할 장관을 1명 정해주면 해당 장관만 참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 5명의 장관이 참석한 것이다. 또 에드워드 탄누르 의원 협회장, 스리 울란 한·인니 의원친선협회 의원과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인 신태용 감독도 자리했다.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라며 최근 양국 외교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고,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비준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사는 “지난 7월 양국 정상은 무역과 투자, 공급망 회복, 녹색 경제, 신수도 개발 등에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국경일 행사에서 박태성 주인도네시아대사(가운데)와 신태용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등 참석자들이 대형 비빔밥을 함께 비비고 있다.

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라며 “양국 간 협력은 아세안, 나아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완성차 공장을 세웠으며 아세안 지역에서 처음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기도 했다. 또 LG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부터 배터리 생산까지 이어지는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코는 현지 국영기업과 35억 달러(약 4조5천600억원)를 투자해 철강 생산을 늘리는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나딤 마카림 교육문화연구기술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올해 양국은 교육문화 분야의 혁신적 변화와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라며 “양국의 우정이 정부 인사 간 교류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를 통해서도 심화하고 있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참석자들이 대

형 비빔밥을 함께 하며 양국의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시간도 마련됐다.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잇따르고 양국 간 전방위 협력이 한층 강화하면서 양국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며 “한국 국경일 행사에 현지 장관급 고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것만 봐도 양국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21-1122-8827
khong3000@gmail.com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아시아 각국, 1997년 외환위기 떠올리며 우려...그때와는 달라”

NYT “시장, 최소한 현재까지는 유사한 위기 가능성 낮게 봐”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에 아시아 각국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를 떠올리며 불안해하고 있지만, 최소한 현재까지는 유사한 위기가 재연될 위험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연초

대비 약 17% 떨어졌으며, 일본 엔화(-20%), 중국 위안화(-11%), 태국 바트화(-11%), 필리핀 페소(-13%) 등 다른 아시아 통화 가치도 대폭 하락한 상태다. 이러한 흐름은 1997년 이후 좀처럼 없었던 만큼 기업과 정책 당국자들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게 NYT 평

가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또 일본은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엔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엔화를 매입했고, 중국도 구두 경고 등을 통해 위안화 가치

하락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아시아 통화 약세는 근본적으로 달러 강세에서 비롯된 것이다. 엔화·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지수는 지난달 말 20년 만에 최고치인 114대까지 치솟았다가 현재 111대에서 고공 행진 중이다. NYT는 “최근 아시아 통화

의 약세는 25년 전 집단적 트라우마를 떠오르게 한다”면서 “당시 아시아 지역의 눈부신 성장에 대한 흥분이 하룻밤 사이에 악몽이 됐다”고 전했다. 1997년 당시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가 한국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번졌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말까지 이들 국가의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1천억달러(약 142조원) 넘는 자금을 배정했다. 당시 외환위기 여파로 1998년 한국(-5.8%)을 비롯해 인도네시아(-13.7%), 태국(-9.7%) 등 아시아 각국은 혹독한 마이너스 성장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아시아 각국은 경제 체질 개선에 나섰다. 최소한 현재까지는 대다수 이코노미스트와 시장 애널리스트들이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 체력이 그때보다 강하며, 당시와 비교하면 달러화 부채가 적고 달러 대비 환율 변동성을 시장에 맡겨 환율 취약성도 덜하다는 것이다. 또 아시아 각국은 그간 외화 순유입국으로서 외환보유고를 쌓아왔다. 다만 인도와 태국이 올해 들어 자국 통화 가치 방어를 위해 외환보유고를 10% 넘게 쓰는 등 아시아 각국은 외환보유고를 소진하는 중이다. NYT는 이번만 아니라 기업들이 달러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 등에 적응해야 하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한 가구업체는 NYT 인터뷰에서 제품 수입 시 대부분 달러로 결제한다면, 최근 원화 약세로 5월부터 수입을 10% 줄였다고 밝혔다. 이어 강달러와 고물가가 지속되면 감원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입국 후 PCR 검사’ 안 받아도 된다...10월 1일부터

필요하면 PCR 재도입 검토...접촉면회, 음성 확인 후 마스크 쓰고

접종요건 충족시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도 허용

1일부터 입국 1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도 해제된다.



▲입국 후 PCR 검사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입국자 격리의무 해제, 입국 전 검사 해제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국내 입국 관련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모두 사라지게 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중대본회의 모두발언에서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해외유입 확진율이 8월 1.3%에서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

세종인 BA.5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다수 국가가 입국 시 검사를 면제하는 상황도 고려했다. 그러나 입국 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검역 단계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입국 후 3일 이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은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의 치명률이 낮다는 점, 의무 검사로 국민이 불편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국 후 의무 검사 중단을 결정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발생률이나 치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국가가 발생하면 주의국가를 지정해 입국 전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 호흡기 바이러스 통합감시로 국내외 유행 변이를 상시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이날 신규 확진자 수가 2만8천명대로, 전 국민의 48%인 2천477만 명이 코로나19를 경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80으로 5주 연속 1 아래

를 기록했다. 이 1총괄조정관은 윙겨울 독감(인플루엔자)-코로나19가 동시에 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감염률이 높은 10대가 주로 생활하는 학교, 청소년 시설 방역 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청소년·여성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에게 주 1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긴급돌봄으로 2020년부터 42만693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겨울 한 차례의 유행이 예상되지만, 결국 우리는 코로나를 극복해낼 것”이라며 미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www.f1-logix.com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Leading Logistic Provider

4PL

항공, 해상운송

내륙운송

통관대행

물류 컨설팅

물류 OS

W&D 사업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인디케이터 설문조사 : 간자르 당선 가능성 고공행진



▲왼쪽부터 프라보워, 간자르, 아니스 (Dok. detikcom)

여론조사기관 인디카토르 폴리틱 인도네시아(Indikator Politik Indonesia)가 9월 13일-20일 사이에 전국 모든 주에서 인구비례에 따라 1,220명 응답자들의 답변을 취합한 결과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의 당선가능성이 29%로 나오면서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를 크게 따돌렸다. 이번 여론조사는 랜덤 샘플링 방식으로 선발된 1,200명 규모의 응답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오차범위 +/-2.9%, 신뢰수준은 95%이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부르하누딘 무흐타디 대표에 따르면 프라보워와 아니스는 이전 8월 조사에 비해 약간의 당선가능성 하락세를 보여 각각 19.6%, 17.4%를 기록했다. 즉 간자르는 8월 24.5%에서 29%로 크게 올랐고 프라보워는 21.3%에서 19.6%로 소폭 하락한 것이다. 아니스 역시 8월에 비해 2% 하락했다. 다음은 동 여론기관이 10월 2

일(일) 발표한 조사대상 11명의 9월 당선가능성 조사결과다. 간자르 프라노워 중부자바 주지사 (투쟁민주당) 29.0%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 (그린드라당 총재) 19.6%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17.4% 리드완 까밀 서부자바 주지사 8.7% 아구스 하리무르티 유도요노 민주당 당대표 4.1% 산디아가 우노 관광장조경제부 장관 3.0% 뿌안 마하라니 국회의장 (투쟁민주당) 1.9% 코피과 인다르 빠라완사 동부자바 주지사 1.8% 에릭 토히르 국영기업부 장관 1.0% 마흐푸드 MD 정치사법안보 조정장관 0.9%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0.6% 프리 리스마하리니 사회부 장관 0.6% 가똇 누르만티요 의원 (전 통합군사령관) 0.5% 밤방 수사티요 MPR 의장 0.3%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경제조정장관 (골카르당 당대표) 0.3% 아흐마드 사이쿠 복지정의당 (PKS) 당대표 0.3% 무하이민 이스칸다르 국민각성당(PKB) 당대표 0.2% 줄키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 0.2% 수하르소 모노아르파 국가개발기획부 장관 (전 통합개발당(PPP) 당대표) 0.1% 지지자 없음 8.1% 8월 하순 정치 사파리 투어를 시작한 이후 다른 조사에서는 일부 인지도와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나타난 뿌안 마하라니가 여기서 여전히 1%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대선 도전의지를 단 한 번도 비치지 않은 코피과 동부자바 주지사와 거의 비슷한 당선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그녀를 투쟁민주당 대선후보로 공식화하려는 메가와티의 의지가 국민 여론을 완전히 무시한 고집이자 몽니라는 걸 강변하는 조사 결과인 셈이다. [드팩닷컴/기사제공=배동선 작가]

4분기 EDCF 발주 쏟아진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활용한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개발사업이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중남미 지역 등 다양한 국가에서 EDCF 사업이 발주돼, 건설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4일 해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4분기 중 총 13건의 EDCF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3분기 중 발주된 EDCF F/S 사업이 6개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4분기에는 2배 수준의 F/S 사업이 확대되는 셈이다. EDCF는 장기 저리의 원조 차관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발주 사업 수 증가와 함께 수원국도 다양해졌다. 3분기에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동남아에 편중됐던 반면, 4분기에는 동남아 지역 외에도 이집트와 탄자니아·르완다·콜롬비아 등 아프리카와 중남미로 사업 영토가 넓어졌다. 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필리핀·인도네시아 등 총 8건이 포함됐으며, 아프리카에서는 4건, 중남미에서는 1건의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 사업 중에는 건설업계가 관심을 둘 만한 토목 및 교통, 상하수도 인프라, 건

축 등의 프로젝트가 다수 포함됐다. 캄보디아에서는 △지속가능한 프놈펜 동남부 상수도 사업이 이달 중 발주될 것으로 보이며,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직업교육시설 현대화 사업 △안그렌시 난방시스템 현대화사업이 이번 달 입찰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글라데시의 다카 유타라(Uattara)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이집트의 과학기술원 건립사업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11월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업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의 그린 수에즈운하 사업을 비롯해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병구병원 및 훈련센터 사업 △르완다의 기술인력 개발센터 건립사업이 수은의 F/S 발주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이밖에 필리핀의 △마신 해안 우회 교량 건설사업 △철도 운영 관리시스템 구축사업과 인도네시아의 메단 하지 종합병원 건설사업, 콜롬비아의 전기버스 도입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해외건설업계 관계자는 “중소·중견건설사 입장에서 신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수은의 EDCF를 활용해 해외 공사경험을 쌓고 트랙레코드를 보유하는 게 중요하다”며 “EDCF를 통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 참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추가 건설수주도 노릴 수 있어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경제신문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yu@hotmail.com



김재훈의 세무상식

**PMK No. 61/PMK. 03/2022
자가건설활동에 대한 부가세(PPN KMS)**

지난 3월 30일 재무부 장관령 61/PMK.03/2022이 공표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가 건설 활동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부가세율이 11%로 인상되면서 자가건설에 대한 부가세율도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자가 건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종전 PMK No.163/PMK.03/2012 규정은 2022년 3월말 이전까지 적용되고 4월부터는 PMK No.61/PMK.03/2022를 적용하여야 한다. 자가건축활동(KMS)은 사업활동이나 사업에서 수행되지 않는 신축건물 및 노후건물의 증축을 모두 포함하는 건물 건설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3항) 위에서 언급된 건물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한 단위의 토지 및/또는 건물에 영구적으로 식재되거나 부착되는 1(1)개 이상의 기술 건축물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4항) a. 주요 건축물은 목재, 콘크리

트, 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 및/또는 강철로 구성 b. 거주지 또는 사업 활동 장소로 지정됨; 그리고 c. 건축 면적이 최소 200m²(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또한 상기에 언급된 자체 구축 활동은 다음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제2조 5항) a. 특정 기간에 한 번에; 또는 b. 건설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한 점진적으로 단일 활동 단위로 진행 납부할 부가세는 부가세법 제 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세율에 20%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2항) 납부할 부가세는 자가건설활동에 대하여 건축물의 착공 시점부터 건축물이 완공될 때까지 발생한다.(제4조 1항)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익월 15일까지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한다.(제5조 1항) 부가가치세는 해당 분야 법령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규정을 준수하는 한 매입세액

으로 공제할 수 있다. (제 6조 1항) 자가 건설에 대해서 200m² 이상인 경우에 건축물의 착공부터 완공될 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20% * 11%로 2.2%의 부가세가 부과된다. 관련한 규정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한번의 건축 활동** 예시 1) W 씨는 집을 직접 지었다. 공사기간은 2022년 6월부터 50m²(50m²) 규모로 동시에 진행하였다. 이 경우 200m² 이하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X 씨는 집을 직접 지었다. 공사는 2022년 6월부터 200m²(200m²) 규모로 동시에 진행된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B. 점진적인 건축 활동** 예시 1) Y씨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20m²(120제곱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의 건설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

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 2022년 6월에 50m²(50제곱미터)의 면적; 그리고 2. 1단계 이후 6개월간 2023년 1월 70m²(70제곱미터)의 건설이 계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그러나 하나의 활동 단위로 건축된 총 건축 면적은 200m² (200평방 미터) 제한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예시 2) Z씨는 사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m²(300제곱미터)의 면적에 자신의 창고를 지었다. 창고 건설은 다음과 같이 건설되는 건축 면적의 세부 사항과 함께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1. 2022년 6월 면적 100m²(100제곱미터); 그리고 2. 1단계 이후 6개월(6개월)인 2023년 1월에는 200m²(200제곱미터) 면적으로 건설이 계속되었다. 1번과 2번에서 언급한 건축 단계는 이 단계 사이의 유예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활동 단위이다. 또한 한 단위의 활동으로 이어진 건



김재훈 대표

물의 총 면적은 200m²(200제곱미터) 한도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부가세가 부과된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kimjhoon@bngconsulting.co.kr

현대엔지니어링, 인니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근 인도네시아를 찾아 현지 부동산 개발업체 아디 커뮤니티 프로퍼티(ADCP)와 부동산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ADCP가 현지에서 추진 중인 LRT 시티 MTH, LRT 시티 판교관, 아디 시티 센틀 등의 사업지를 둘러봤으

며, 이 가운데 하나 정도를 추진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인도네시아에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여러 플랜트 사업을 진행하며 현지 건설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다. 올해 1월에도 롯데케미칼이 발주한 7억5700만달러(약 912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LINE 프로

젝트'를 수주한 바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앞서 지난 2019년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발릭파판 정유공장 프로젝트'를 수주해 진행 중이며, 지난해 5월에는 4조5000억원 규모의 'TPPI 올레핀 복합단지' 사업 기본설계용역(FEED) 낙찰자로 선정됐다. 출처 : 스트레이트뉴스



▲최근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 아디 커뮤니티 프로퍼티를 방문한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가 주요 사업 예정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아디 커뮤니티 프로퍼티

PT. KUMGANG INTERNATIONAL



비상구 스틸도어 (PANIC BAR)



인도네시아에 한국산 자동문과 스틸 셔터 모터 시장을 금강이 시작 합니다!



- 알루미늄 접이식 홀딩도어
- 알루미늄 시스템 창호
- 전동/방화 셔터 시스템
- 방화문 & 패션도어
- 디지털 도어록

Showroom :
Ruko Fifth Avenue Jl. Boulevard Gading Serpong Blok A/28, Kab.Tangerang – Prov Banten 15810
TEL : 021. 5568. 5408 Email : ptkumgang@gmail.com

Factory :
Jl. Pengampelan RT.06/RW.03 KP. Nambo Kaserangan Ciruas 42182 Serang, Banten
TEL : 0254. 8285. 258

인니 국토부 장관이 말하는 ‘토지 마피아’ 들의 남의 땅 가로채기 수법

인도네시아 농지공간기획부/국토청(ATR/BPN) 하디 짜한또(Hadi Tjahjanto) 장관이 토지 마피아에 대해 또다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직전 통합군 사령관을 역임한 공군대장 출신의 하디 장관은 토지국 내부자, 변호사, 법무사(노타리스), 구청 직원, 이장 등 다섯 부류의 사람들이 토지 마피아를 구성한다고 지적했다.

하디 장관은 2일(일) 드딱닷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토지 마피아들이 토지를 가로채는 수법에 대해 설명했다. 예를 들면 비어있는 땅을 본 마피아들이 우선 땅주인과 소유권 증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소유권 증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곧바로 해당 토지를 가로채기 위한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선 토지국 직원을 통해 별도의 서류를 발급 받아 구청장이나 이장에게서 PM1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PM1 서류란 일반적으로 사



▲남부자카르타 주택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람은 같은데 주민등록서류상 이름이나 생년월일에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정정하는 주민정보등록 증명서의 성격이며 동-면장이나 관할 직원의 서명을 받아 발급된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이름을 바꾸기 위한 밀착업인 셈이다. PM1 서류작업이 끝나는 시점에서 토지 마피아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 그런 다음 국가행정법원(TUN)에 소송을 내면 매우 높

을 확률로 토지 마피아들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다. 특이한 점은 해당 절차가 매우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정작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조차 자기 소유권이 남에게 다 넘어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기 쉽다는 것이다. 때로는 더욱 위험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종합토지등록시스템(PTSL)에서 프로그램을 조작해 소유권 서류를 직접 위조하는 것이다. 종합토지등록시스템(PTSL)은 토지소유권 증서를 신속하게 발급해 주기 위한 정부 공식 프로그램이다. 이 경우엔 행정법원 판결을 거치지 않고 서도 토지 마피아들이 합법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하디 장관은 마피아들이 토지국 내부자의 도움 없이는 이런 방식을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실제로 종합토지등록시스템을 통해 위조된 소유권 증서가 민간에 제공된 예가 여러 건 발견되었다. 이 경우 토지 마피아들이 해당 위조 소유권 증서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원본 소유권 증서도 동시에 수정된다. 토지국 내부자가 조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남부 자카르타에서 이런 방식으로 토지를 가로챈 토지 마피아들의 사기사건을 하디 장관이 직접 나서 백일하에 폭로한 전력이 있다. 하디 장관이 밝힌 또 다른 기법은 어떤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가 종합토지등록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토지 등록을 진행했지만 등록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마피아가 끼어들어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이다. 수정된 소유권 증서 내용은 임의로 편집되거나 소유권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수정된 소유권 증서를 받아든 마피아 일당이 해

당 토지를 완전히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해 소유권자 이름을 바꾸고 주소와 지번, 면적 등을 모두 바꾸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수법이라고 하디 장관은 지적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는 토지 마피아에는 당연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이 배정되어 있다. 토지 소유권자로서 이름을 올릴 사람, 불법적인 일엔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만큼 관련 비용을 위해 자금을 털 사람이 필요하고 담당 부처의 내부자를 포섭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이장 또는 동-면장에게서 PM1 서류를 수속할 사람, 해당 서류들을 검토하고 준비할 법무사 등, 토지 마피아들은 나름 고도화된 업무분장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디 짜한또 장관은 공군대장 출신으로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2017년부터 4년간,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관을 역임한 후 2021년 11월 퇴임했다. 그 후 그는 뜬금없이 토지 마피아 문제에 대해 줄곧 목소리를 내며 신문 지면에 자주 등장하다가 2022년 6월 농지공간기획부/국토부(ATR/BPN) 장관으로 전격 발탁되었고 이후에도 줄곧 토지 마피아 퇴출에 힘쓰고 있다. [드딱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롯데건설, ‘340억 투입’ 인도네시아 합작사 설립... 고급 주거단지 개발 참여

파꾸안과 합작 투자...롯데 70% 지분 확보 ‘여의도 공원 절반 크기’ 10만㎡ 부지 매입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기업인 파꾸안이 자카르타 남부 데콕에서 개발하는 고급 주거단지 사업 ‘바산타 에코타운’ 조감도 (사진-파꾸안)

롯데건설이 인도네시아 부동산 개발업체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수도 자카르타 고급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한다. 글로벌 디벨로퍼 도약 목표를 위해 신(新)남방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 인도네시아법인인 현지 부동산 개발기업인 파꾸안(Pakuan TBK)의 자회사 자카르타 인베스티토(Jakarta Investindo Indonesia)와 합작사(Lotte Land Sawangan · LLS)를 설립했다. 지분율은 롯데랜드가 70%, 파꾸안 자회사가 30%다. 롯데건설은 합작법인인 LLS를 통해 파꾸안이 자카르타 남부 도시 데콕에서 추진하는 고급 주거단지 사업 ‘바산타 에코 타운(Vasanta Eco Town)’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자카르타 인베스티토로부터 10만4363㎡ 규모의 부지를 3650억 루피아(약 340억원)에 양수했다. 롯데건설은 인도네시아에서 다수의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9년 현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모던랜드와 합작사를 설립하고 자카르타 동부 가든시티에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세쿼이아7’를 개발 중이다. 롯데건설은 단순한 시공사가 아니라 사업 발굴과 기획부터 금융조달, 건설, 운영관리 등 사업 전체를 총괄하는 글로벌 종합 디벨로퍼로 거듭나고자 시행과 시공을 겸하는 투자 개발형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시장에서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THE GURU

SINCE 1969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보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Tel : 021.5980.222 / 5982.666
 Ruko Tal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Fax : 021.598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버린 비닐봉투

명절의 시가(嫁家)는 부담스럽다. 그것이 시골에 있으면 더 불편하다. 시골에서 자란 나도 불편한데 도회지에서 자란 아내는 얼마나 불편했을까? 요즘은 전기와 수도, 가스가 들어오고 가전제품, 특히 냉장고와 에어컨, TV가 있으니 한편으로는 도심을 떠나 약간의 여행 기분이라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명절이 다가오면 아내의 눈치를 살피고 기분을 맞추어 주어야 했다. 시가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 시골집은 개량되지 않은 초가삼간에 지붕만 양철로 바꾼 것이었다. 화장실은 따로 떨어진 재래식이어서 냄새도 심했고 화장지도 제대로 없었다. 나무로 불을 때는 아궁이에다 펄프질을 해서 물을 퍼 올려 쓰니 머리감고 샤워는 커녕 세수조차도 거북스러웠다. 그러니 거기서 나고 자란 나도 불편한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번 추석에 어느 시골집만 며느리가 와서 조용히 음식을 장만하고 설거지하고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가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검은 비닐봉투

에 담아 주시더라. 작은 며느리는 미리 안 가져가겠다고 밝혀 훌훌 떠났고 큰 며느리는 고맙다며 받아들고 오다가 휴게소 쓰레기통에 처 박아버리고 말았다. 검은 비닐 봉투에 가득 담은 음식, 이걸 언제 다 먹지? 뭐이 까짓것을 싸 주시나..... 일년에 서너 번은 시집가서 고생하자고 다짐하면서 남편 체면은 세워 주자 마음먹은 일이었지만 며느리는 피곤하다.

집에 와서 쉬는데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다. 일어나기도 귀찮아 누워서 받으며 말이사 "어머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데 "에미야, 네가 하도 착하고 고마워서 둘째 몰래 돈을 좀 넣었다. 그걸로 몸보신하고 새 옷도 사 입어라, 고맙다." 하시더라. 큰돈은 아니지만..... 하시면서 500만 원쯤 넣으셨단다. 단걸음에 그 휴게소의 쓰레기통을 뒤지는데 산 같은 쓰레기 더미에서 어찌 찾겠는가. 쓰레기 더미를 뒤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노인들만 남은 농어촌, 간간이 귀농귀촌한다는 사람들이 있지만 농어촌은 비어만 간다. 빈집이 늘고 빈터를 보자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싶다. 마을에는 아기 울음이 그친지 오래고 어

린에 구경을 하기 힘들다. 일손이 없어 가꾸지 않는 논밭도 많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는 없어진지 수십 년이다. 무슨 대책이랍시고 꾀를 짜내어 보지만 그게 어찌 쉽게 해결될 일인가? 그런데 이 분들은 객지에 사는 자식을 걱정이다. 소식이 궁금하고 사랑스런 손주들도 보고 싶다. 내가 가끔 어머니를 그리면서 읊조리는 시가 있다. 무슨 그런 복을 타고 나셨는지? 자식 많은 복 말이다. 9남매를 키웠으니 그 고생을 어찌 다 말로 할까.

" '바다' 가 '바다' 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은 /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 주기 때문이다. / '괜찮다.' / 그 말 한마디로 / 어머니 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시인 '문무학'은 어머니를 "바다" 라고 읊었다. 나는 하늘이라 부르고 싶다. 그것도 목 놓아 말이다.

추석이 지나니 유난이 많고 푸른 하늘이라 무엇을 어찌 하면 좋을까 모르겠다. 걱정스런 태풍이 천지를 씻어주고 식혀주었다. 시원한 바람이 맑고 푸른 하늘에서 내려온다. 아픈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흐른다. 내 두발로 걷고 돌아다니는데 지장이 없어서 감사하다. 굶지 않는데 무슨 욕심을 더 낼까? 허겁지겁 기는 듯 사는 우리들을 벗어나 탐스럽게 익어가는 들녘을 보는 것도 행복이다. 남은 날을 세어 보지는 않으려다.

태국에서의 일이다. 카페 같이 아늑한 어느 절의 기둥에 붙어 있는 표를 보고 놀랐다. 살아 온 날과 살아 갈 날을 쉽게 보여주는 표다. 나이 별로 예상되는 남은 수명을 기대 여명이라 한다. 그 나라의 평균수명에서 계산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인생을 70으로 계산한다. 환갑이 된 사람은 10년인 3,650일만 남았다는 것이다. 사실, 건강하게 두발로 움직이며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나이가 70이라 하면 그리 무리는 아닐 것이다. 70을 살지 못하고 간 사람도 부지기수며, 70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도 많기 때문이다.

2020년의 통계를 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남자 80.5세, 여자 86.5세로 전체 평균 83.5세 정도 된다. 그 중 건강수명은 2020년 기준, 평균 66.3세다. 즉, 노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남자는 평균적으로 약 14년, 여자는 20년 가량을 힘들게 살다 간단다. 이때에 돈이 많이 들지만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맞고 자식들도 또 제 자식이 있고 일이 바쁘니 아픈 부모는 짐이다.

제 발로 걸으며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화장실에만 제 발로 다녀도 좋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건강이 하루아침에 나빠지지 않는다. 성장이 멈추면 곧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니 오랜 습관과 생각, 식생이 건강



조기조 박사

을 결정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안 좋으면 신호가 온다. 이때부터라도 잘 챙기면 다행이다. 건강검진도 자주하고 병은 초기에 잡는 것이 절대적이다. 나는 무엇보다도 비우라는 말에 공감한다. 욕심내지 않는 것, 신세지지 않는 것, 미미하지만 재능기부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실천하는 내려놓고 비우는 일들이다. 비우는 김에 속도 좀 비우려 한다. 몸 속, 마음 속, 지갑 속 모두 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휘발유 가격 올린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 7년래 최고치 9월 물가상승률 5.95%...금융시장 전망보단 소폭 밀돌아

인도네시아의 물가상승률이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을 통해 묶어뒀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넘게 올린 결과다. 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네시아 물가상승률은 연 5.95%로 집계됐다.

이는 2015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지난 8월(연 4.69%)보다는 1.26%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6%가 넘을 것으로 예상됐던 금융시장 전망치보다는 소폭 낮았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품목과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연 3.21%로 지난 8월(연 3.04%)보다 0.17%포인트 높아졌다.

물가상승률이 대폭 상승한 것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던 휘발유와 경유 가

격을 올렸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달 3일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30% 이상 올렸다. 국제유가 상승에도 보조금으로 가격을 유지하다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결국 가격을 인상한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고 유원도 통계청장은 기자들과 만나 "연료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운수부문 비용 상승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지 않은 지역이 많아 이들 지역이 요금을 올리면 물가는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되자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도 금리를 올리며 대응하고 있다. BI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3.75%에서 4.25%로 0.5%포인트 올렸으며 물가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금리 인상 추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이르만 파이츠는 올해 말에는 물가상승률이 6.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BI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space.megaenergi.id>
EPC Service & Energy Business (PLTU, PLTA)

창립 20주년
발전소 상업운전 4주년

인도네시아 에너지사업을 주도하는 혁신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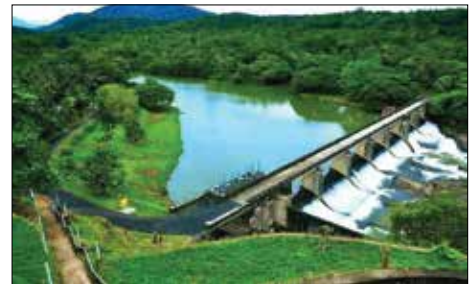
저희 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2002년 전기공사 전문업체로 시작하여
전기, 계장, 기계, 건축, 토목 분야에 이르기까지
20년간 꾸준히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EPC 종합건설 서비스 업체로 발돋움 하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에너지 IPP사업에도 진출하여
자체 화력발전소 1기 시공/운영 및 전력판매 중이며,
친환경 에너지 수력 및 태양광 사업에도 지속 투자하며
에너지 사업의 Developer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우랑 화력발전소 (보유지분98%, EPC수행)



라노야뵤 수력발전소 (IPP추진중)



스페이스 본사 및 생산설비 (제1,2,3 공장) 전경

Jl. Damar Blok F1-03 Delta Silicon II, Lippo Cikarang, Cibatu, Cikarang Selatan - Bekasi
Hunting 021) 8990-2215, Fax 021) 8990-2223 / Website : <http://space.megaenergi.id>
연락처 : 사업관리팀 안민성 HP : 0813-1684-5713 / 이메일 : anminsung@megaenergi.id



고유가 등에 업고 '제2의 중동 붐' 실현할까...해외에서 활로 찾는 건설업계

올해 해외 수주액, 전년 대비 29% 상승...미국·중동 수주 돈보여 삼성물산, 7월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수주하며 전체 수주액도 증가

부동산 빙하기를 맞은 건설업계가 얼어붙은 한국의 주택 시장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주택 건설 시장이 침체에 빠졌기 때문이다. 금리가 치솟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상위 10대 건설사 매출 비율의 50%를 한국 주택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대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이다.

건설사들의 재무 상태도 악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10대 건설사들의 올해 상반기 부채 규모는 모두 80조원으로 작년 상반기 69조원에 비해 15.9% 증가했다. 1년 새 1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10개사 모두 작년보다 부채가 늘어났다. 건설사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분양 실패 등의 부담으로 분양 승인까지 받아 놓은 사업마저 미뤄 놓은 상태다.

관급물량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10.2%(2조8000억원) 감액한 25조1000억원으로 편성하면서 건설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SOC 예산이 축소된 것은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건설업계는 민간 주택 시장이 침체한 상황에서 SOC 일감마저 줄게 되면서 한국 시장에서 이중고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국의 주택 사업 비율이 50%였는데...건설사 비상
건설업계는 이 같은 고비를 해외 수주로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올해 건설사 해외 수주 실적은 나쁘지 않다. 한국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늘었다. 최근 수주 흐름을 감안하면 연내 목표 수준(약 320억 달러)은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300만 달러 이상 수주액을 기록하게 된다.

기업명	수주액 (달러)
삼성물산	407547만 달러
현대엔지니어링	249848만 달러
보안건설	209357만 달러
롯데건설	149230만 달러
현대건설	109440만 달러
대우건설	107860만 달러
DOOSAN 동산엔지니어링	94335만 달러
SK건설	92376만 달러
GS건설	59432만 달러

자료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서비스에 따르면 10월 4일 기준 올해 해외 건설 수주액은 224억 달러(약 31조 9800억원)로 전년 동기(174억 달러) 대비 50% 증가(28.7%) 증가했다. 다만 해외 건설 호황기였던 2010년대 초반 매년 600억~700억 달러를 수주한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 토막 수준이다.

2010년 호황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반 토막

또 올해 수주 성적을 들여다보면 약간의 착시효과도 있다. 올 상반기까지는 120억 달러를 수주해 지난해 같은 기간(147억 달러) 대비 18.4% 적었다. 수주액이 급격하게 늘어난 건 7월부터다. 삼성전자 미국 반도체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한 삼성물산의 역할이 컸다.

삼성물산은 7월 미국 텍사스 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신축 공사를 수주했다.

이는 회사의 상반기 전체 해외 수주 실적보다 많은 19억 달러(2조 7000억원)였다. 삼성물산이 7월 수주한 물량은 삼성전자가 총 170억 달러(약 24조원)를 투자해 짓기로 한 테일러시 신규 공장 건설 프

로젝트의 일부다. 업계에선 보안상의 이유로 삼성물산이 수주 물량의 대부분을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해외수주 '대어'가 한국 기업에서 비롯된만큼 예년보다 건설사들의 해외수주 경쟁력이 늘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물산 해외 수주 물량을 빼면 건설사 수주액이 예년과 비슷한 상황이라 특별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거나 건설사가 새로운 전략으로 피봇 역할을 할 만한 요소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며 "유가가 급락할 수 있는 상황이나 통화 가치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수주액을 올린 삼성물산의 뒤를 이어 현대엔지니어링(24억8488만 달러), 삼성엔지니어링(24억3517만 달러), 롯데건설(14억9493만 달러), 대우건설(10억180만 달러)이 10억 달러 이상 계약을 따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인도네시아 초대형 석유화학단지인 현대차의 중국 연료전지 시스템 스택 건설 프로젝트를 올해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앞서 1주일 간격으로 총사업비 2조원이 넘는 해외 사업 수주액을 올렸다. 1조9000억원 규모의 필리핀 철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1주일 만에 쿠웨이트에서 2200억원 규모의 항만 공사를 수주했다. 앞서 지난 6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그리스의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네움시티 프로젝트 중 '더 라인'의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 규모의 터널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수주를 전폭적으로 늘려 가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올해 들어 약 1조9800억원(14억2300만 달러)의 해외 수주를 따냈다. 전년(1억1700만 달러)과 비교해 약 1116% 정도 증가한 수준이다.

대우건설은 그간 해외 사업에서 손실을 쌓아왔던 플랜트 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우건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이지리아에서 4억 9232만 달러 규모의 나이지리아와리 정유시설 보수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올해 상반기 수주액은 총 7조 7719억 원을 달성하며 올해 초 공시한 수주 목표 12조 2000억 원의 63.7%에 달하는 성과를 올렸다.

'네움시티' 중심으로 제2의 중동 붐 노린다
건설사들의 해외수주를 돕기 위해 정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을 통해 한때 수출 역군이었던 해외 건설 수주를 통해 정체 상태에 놓인 수출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2의 중동 붐'을 주문하며 5년 내 연간 500억 달러 수주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인프라지원공사의 자본금을 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한국수출입은행 지원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 산업은 한때 한국의 '수출 역군'이었다. 2010년 710억 달러대에 이르던 해외 건설 수주는 2016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2019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2019년 총수주액은 224억 달러로 2006년 165억 달러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 3년 연속 해외 수주는 300억 달러 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경쟁력이 떨어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한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유가가 낮아지면서 중동 지역 플랜트 수요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의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은 대체로 유가와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건설사가 주로 중동과 아시아 지역에서 석유화학 플랜트로 수주를 올린 결과다.

유가가 높아져 플랜트 건설이 늘어나면 수주액이 늘고 유가가 낮아지면 다시 수주액이 줄어든다. 실적이 좋았던 2010~2014년은 국제 유가(두바이유 기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을 기록하던 시기다. 하지만 2015년 국제 유가가 급락한 뒤 한국의 해외 수주 실적은 가파르게 하락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 경기가 몇 년간 활황을 유지한 것도 큰 이유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지난 몇 년간 한국 주택 시장에 집중하면서 리스크가 큰 해외 수주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유가가 80~100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의 주택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특히 오일머니가 대거 유입되는 중동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수익이 높아진 중동 기업들이 대규모 시설 투자를 계획하면서 건설업계 수주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는 2020년 2분기 이익이 66억 달러로 대폭 감소했지만 수익이 확대되며 올해 2분기에는 484억 달러로 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존 400억 달러의 시설 투자 계획을 50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 발표했다.



BS 476 Fire Test "CLASS 0"

인도네시아 최초 획득...

건축 자재 (Building and Construction Materials)



Duct / Pipe / Roof Insulation(보온 단열재)

가방 제조업체 부자재 공급 및 가공 (Bag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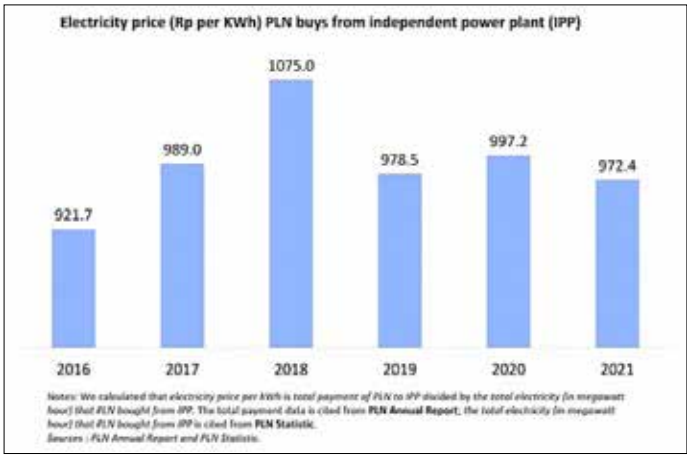
자동차 내장재(전자선 가교 폼): Door Trim, Sun Visor, Headliner 등
스포츠&레저(실내 및 야외 매트, 구멍조끼, 수영보드, 헬멧 및 장갑, 신발 Insole)

두께 : 2mm ~ 50mm , Density : 25kg/m3 ~ 200kg/m3

본사 : Jl. Raya Serang KM., 16, 8 Desa Telaga Cikupa, Tangerang 15710 Indonesia
TEL : (021) 5940 4086, 5940 4087 FAX : (021) 5940 4084
한국인 직통 : 0815 1902 0499(제 환영부장) E-Mail : yjeh@toilon.co.id / yjeh@toilonindo.com Website : www.toilon.co.id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PLN의 전력구매가격 정책 제안



▲*이 논설은 4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게재된 만디리 은행의 산업 및 지역 연구 책임자의 의견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가속을, 재생원으로부터 오는 전기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 112/2022를 발표했다. 이 법령의 핵심 요점 중 하나는 국영 전기 회사 PLN이 재생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최고 전기요금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령은 전기 요금이 에너지 자원 종류(수력, 지열, 태양 전지 등), 발전소의 발전 용량(용량이 큰 발전소는 가격이 저렴), 발전소의 위치(인도네시아 동부가 자바보다 가격이 높음)에 따라 가격을 정한다. 또한 이 대통령령은 최고 가격을 고시하여, 재생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 법령은 재생 에너지에 더 많은 투자를 촉진할 열쇠이며, 두 가지 핵심 쟁점 즉 최고 가격 정책과 민자 발전소(Independent Power Plants, IPPs)에서 재생 전기에 PLN의 구매 가격을 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전력 시장은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규제를 신중하게 평가하여 이러한 규제가 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첫번째 쟁점인 최대 가격 정책이 조금 이상하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전력시장 구조는 구매자 독점이다. 즉 단일 구매자인 PLN만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전기를 구입할 수 있다. 만일 시장에 하나의 구매자만 존재한다면 구매자는 이미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고 가격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 반대로 강력한 단일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들, 즉 전력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생산자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기 위해 최저 가격이 매우 중요하다. 최저 가격은 정상적인 수준의 이익을 주는 최소 가격으로 생산자가 최소 규모의 경제에 도달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할 경우 최소 가격은 투자 수익을 추정하는 데 유용하다. 두 번째 쟁점은 PLN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얼마나 많은 전기를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최대 고정 금액을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총 구매금액은 에너지의 종류, 생산 능력 및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 상황을 보면 PLN이 민자 발전소로부터 구입한 전기 가격은

2018년 이후 하락하여 킬로와트시(kWh)당 1,075루피아에서 2021년 kWh당 972.4 루피아로 나타났다. PLN 통계자료와 PLN 연차보고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전기구매 단가를 계산하면, kWh당 전기 가격은 PLN(루피아 단위)의 총 지불액을 IPPs에서 구입한 총 전기용량(메가와트 시간 단위)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한다. 총 지급 데이터는 PLN 연간 보고서에서 인용되며, PLN이 민자 발전소에서 구입한 총 전력은 PLN 통계에 나타난다. 최대 예산정책과 확정된 가격수준이 각 사업부에서 PLN에 재생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가격은 정부가 완전히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에 명시된 가격 수준이 생산자들에게 PLN에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올바른 신호를 줄지 여부는 생산자들만 알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최고가격정책은 시장균형 가격과 비교할 때 가격이 너무 낮으면 최고수준을 넘어 협상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든다. 대통령령이 수요와 공급의 변화, 투입 가격의 변화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자주 개정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장단기적으로 두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법령에 명시된 가격을 감안할 때 기업이 재생 가능한 전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직접 문의할 것을 제안한다. 물론, 그들이 전기 사업에서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로 이미 만족스러운 이익을 제공받아서 가격에 만족하기를 바란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정부는 법령의 고정 가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다른 대안적 정책은 곧 실시될 탄소세 수익을 사용하여 재생 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탄소를 생산하는 부문의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신재생 에너지 부문으로 내재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세수의 할당 역시 녹색 부문을 촉진하는 기능이기도 하다. 장기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전력 시장으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은 전기 분배와 발전

을 구별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적 독점은 오직 전기 분배일 뿐이며, PLN은 전기 분배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독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전력 시장은 발전소를 소유한 다수의 전력 생산업체와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 생산업체는 PLN이 보유한 유통망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전기를 판매하는데 있어서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을 하고, 소비자가 가장 저렴한 가격과 최고의 서비스로 어떤 전기 생산자를 선호하는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전력 생산자들은 단지 전기 분배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통행료를 네트워크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쇄/출판 광개토 Kwanggaeto

인쇄

카다록 / 브로슈어 / 리플렛 / 신문 / 메뉴판
 BOOK / 사용설명서 / 사보 / 회보 / 지명원
 보고서 / 회사소개서 / 교재 / 각종 양식의
 카렌다 / 명함 / 봉투 / 바인더 / 쿠폰 / 초대장
 인박스 / 제품 패키지 /
 스티커 / 라벨 / 행택 / 컴퓨터 커팅

공기순환 남성 골프화

Art : BCS 001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2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3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4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5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미드솔의 공기순환 시스템으로발의 쾌적함과 발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폭신한 쿠션으로 무릎관절 보호가 됩니다 특히 천연 소가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출시 하였습니다.

OPEN

LIPPO CIKARANG RUKO ROXY 에 BACAS AIR GOLF SHOES 매장 오픈

판매 품목
 남성 : 골프화, 샌달
 여성 : 신발, 단화, 샌달

CV. BACAS JAYA MAKMUR
 주소 : Ruko Roxy Blok C No. 03, Jl. M. H. Thamrin Lippo Cikarang
 Telp. Kantor : (021) 8990 7992
 Contact Person, Kartika : 0812 8447 3931 Dhika : 0899 296 6527

건설, 토목, 플랜트

POSCO E&C INDONESIA
자카르타 021 7278-4686

PT. SEOHEE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91-6001

PT. KORINDO HEAVY INDUSTRY
땅그랑 021 595-0088

대림산업
자카르타 021 5296-1060

롯데건설
자카르타 021 522-3252

PT. POWERTECH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20-2025

쌍용건설
자카르타 021 5795-0377

두산중공업
자카르타 021 2995-0102

현대건설
Engineering&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571-3700

현대 중공업
자카르타 021 2945-5201

대우건설
자카르타 021 250-6555

GS건설
자카르타 021 5785-3182

SK ECO PLANT
자카르타 021 2709-4662

SK TECH
자카르타 021 520-2025

삼한기업
자카르타 021 520-7439

삼성물산
자카르타 021 527-8182

현대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269-4208

PT. ALAM DUNIA ENG & CONST(ADEC)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땅그랑 021 5579-8505

계룡건설
자카르타 0813 9809-7914

PT. ELJINDO
토목, 일반건설, 공장건축
자카르타 021 7883-3357

PT. SPACE TECHNOLOGY
플랜트 및 공장 설계/제작/시공/O&M
찌까랑 021 8990-2215

PT. P&I INDONESIA
Heavy Machinery, Supplier,
Construction & Port Crane
땅그랑 021 5579-3855

PT. TUNAS DUNIA
자카르타 021 2936-3664

PT. ACE ENGINEERING & CONSTRUCTION
Civil-Architecture-Electrical-Mechanical
IUJPLT(Solar Plant))
자카르타 021 2782-2600

PT. SSA
EPC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62 812 1955-5736

PT. DAEAH E&C INDONESIA
건축, 토목, 플랜트
반튼 021-5574-1492

PT. HAN JIN KONSTRUKSI INDONESIA
General Engineering & Construction
Contractor
세랑 반튼 0254 402323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PT.UTAMA JAYA TEKNIK
Engineering, Construction &
Manufacture
땅그랑 021 5577 4507~09

PT. HANS JAYA UTAMA
건축,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919-2055

PT. WOOL INDONESIA
플랜트, 기계, EPC
땅그랑 021 5935-0229

PT.HAECHANG DEVELOPMENT
토목(터널)
자카르타 0811 610 3042

PT. KMU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
0813 1939 2260

INI GEO
친환경 옹벽, 사면보호, 벽면녹화
자카르타 021 581-4742

인도네시아 건설 및 관련업종 디렉토리

인도네시아 한인 건설 및 관련 업종의 정보 디렉토리입니다. 게재를 원하는 업체는 업체의 기초정보를 본지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다음호 부터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메일:khong3000@gmail.com, 0821 1122 8827

PT. KUMYI PLANT INDONESIA
JAKARTA SELATAN
자카르타 (021) 726 9976

PT. KUMGANG HYUNDAI INDONESIA
커튼월 및 창호 방화도어, 셔터, 자동문 각
종 패널 공사
땅그랑 021 5568 5408

PT. KSK BANGUN KARYA
건설, 토목, 플랜트
자카르타 021 7591-2718

공단 및 공사

한국 수자원 공사
자카르타 021 515-0754

한국 농어촌 공사
자카르타 021 7591-3414

ENGINEERING

PT.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021 652-0449

도화 엔지니어링
자카르타 021 5140-0996

PT. BANGUN JAYA UTAMA
Engineering & Construction
자카르타 021 652-0449

PRATAMA JAYA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6-8070

PT. P-CRANETECH ENG & SERVICES
자카르타 021 5435-0412

대영 엔지니어링 (DY)
자카르타 021 5794-5766

PT. DAEKYEONG E&C
Engineering & Construction
세랑, 반튼 0254 848-7678

PT. CNEX ENGINEERING CONSTRUCTION
Supply and Instalation,
Fire Alarm and Fire Fighting System
자카르타 021 2920-4684

PT. JINWOO ENGINEERING
땅그랑 021 597-7810

PT. GLOBAL SUNG JUOO
General Constructio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2538

PT. MULTI PERSADA
Construction & Engineering , Civil,
M&E, Treading
땅그랑 021 5578-0702

PT. P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PT. FAJAR EKA YOUONE(FEY)
Engineering & Construction
땅그랑 0254 781-3709

건축설계 사무소

정림건축종합건축사무소
자카르타 0852 1561-9583

PT.MSP(MAKMUR SISTIMINDO PERKASA)
자카르타 021 721 0356

전 기

SHINHWA TECHNO PLANT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찌까랑 021 8984 1283

LS Electric (구 LS산전)
전력 수배전 해외사업부
자카르타 0212933-7614

PT. JEONGSUK TECH ABADI
Electrical & Supplier
땅그랑 021 5566-2989

PT. FIRDAUS INDONESIA
Mechanical, Electrical, General
Supplier & Contractor
땅그랑 021 5940-2939

PT. BNC MACHINERY INDONESIA
Electric Rebar Bending, Cutting Ma-
chines & Auto,
자카르타 021 5435-3589

PT. YOOHAN ELECTRIC & C
Agen Cable Listrik (Eterna, Voksel &
JJ-Lapp Cable), Elektrik Equipment
땅그랑 021 5574-6345

PT. YUCOM JAYA MANDIRI
General Contractor, Mechanical
Electric, General Trading
땅그랑 021 5949-2764

PT. UTAMA JAYA TEKNIK
Electrical, Mechanical, Civil, Design &
Engineering,
땅그랑 021 5577-4507

PT. SAMJIN INDONESIA ENC
전기, 통신, 소방공사
자카르타 0812 8293-0448

PT. WOJIN CONSTRUCTION
Electrical, Mechanical, Fire alarm,
자카르타 021 8991-3049

건축자재

PT.DWI MITRA ANUGRAH
에폭시, 바닥시공
021 880-3515, 0812 100-0055

PT. BITUTEK
지붕자재 아스팔트 싱글, 방수시트 제조
찌부부르 021-2906-0202

PT. TOILON INDONESIA
Duct Insulation, Pipe Insulation, Roof
Insulation, Bag Component, Playing
Mat, Automative Part
땅그랑 021 5940-4086

PT.ARI TECH INDONESIA
공정수질개선, 정수시스템
0815 4655-5680

PT. MIDAS INDONESIA
U-PVC 지붕자재
땅그랑 021 5428-7777

PT. ASIA CHEMICAL INDUSTRY
산업용 특수페인트
땅그랑 021 5579-0456

PT. MIRAN METAL INDONESIA
Produksi & Kontruksi Plat Besi,
Stainless, Galvanis, V-Cutting, Tekuk
땅그랑 021 596-9775

PT. SIAN U-PVC
U-Pvc System Window, ABC Door
보고르 021 8794-3838

PT. EROM ABADI INDO
건축자재, 소모품 유통
브카시 021 8991-2061

PT. CTS GLOBAL INDO
친환경 방음, 차음 펜스 생산
찌까랑 021 8991-2061/63

KORINA TOOL
Power tools, Scurity Tool, Mold Materials,
땅그랑 021 5940-0081

PT. MITRA METAL
Metal Spray, Ceramic Coating,
Tungsten Carbide, Febrication
땅그랑 021 596-0522

PT. KYUNG HEUNG INDONESIA
Sandwich Panel TM Roof & Wall, Steel
Structure & Contractor
자카르타 021 530-7244

PT. ANEKA PANEL INDONESIA
Manufacture of Sandwich Panel
자카르타 021 797-8989

PT. SUNWOO HOME INDONESIA
Manufacturing Stainless Steel Pipes
땅그랑 021 5940-0288

PT. TOILON INSU PANEL
Insulated Panel
땅그랑 021 5579-7181

PT. FAJAR EKA INDOTAMA
Steel Structure Fabricating, Piping
(FAB & Instal), Mechanical Construc-
tion,
땅그랑 021 5444-393

HYUNDAI ALUMINIUM CO.,LTD
자카르타 0812-8706-7437

PT. PUTRA HANKUK
Steel Con's & Civil Engineering
자카르타 021 525-5784

PT.DANAKORINDO JAYA
Steel
땅그랑 021 5510-588

PT. KUMGANG INTERNATIONAL
Curtain wall & Aluminum window/ Fire
door & shutter.
자카르타 021 5568 5408

PT. DONG SUNG TOOLS
공구 머신들
찌까랑 021 8990-2723

PT. SMART TECHTEX
Door, Windows, Plafon
자카르타 021 522-7983

에스와이패널
EPS 패널
땅그랑 021 2932-5742

PT. WARNATAMA CEMERLANG
에폭시
땅그랑 021 590-1888

PT. PRIME CON INDONESIA
바닥코팅
땅그랑 021 5316-3787

PT. SEJIN LESTARI FURNITURE
Door, Furniture
땅그랑 021 591-8496

PT.NEWSUN
안전화
땅그랑 021 2901-7310

PT. DOLSEOK INDONESIA
지붕재, 방수시트
땅그랑 021 2259-7930

PT. HYDRO JOTALINDO PERKASA
Master Dealer Lampung Sand
Blasting & Painting Applicator
람뽕 0721 780 151, 0721 781 457

PT. KCC INDONESIA
페인트
자카르타 021 3002-7184

PT. KCCI CHEMTECH INDONESIA
에폭시 바닥재, 접착제
쯔빠라 0291 751-2706

PT. LEBIH BAGUS
친환경 가설
자카르타 0821 1331 3430

CV.TROPIKA PERKASA
각종가구 / 건축용 합판
버카시 0811 1929 350

PT. Lineone indonesia
Scaffolding Fabrication
땅그랑 021 5574 1492

PT. TOPSCO STEEL UTAMA
KRAKATAU POSCO 후판공급
찐레곤 0813 8039 7748

PT. KTC MITRA INDONESIA
U-PVC, 알루미늄도어, 창문, 하이샤시
보고르 021 8792-9422

NEXTIN
LED, Special Lighting
자카르타 021 3104-414

PT.indobaja
방화문제작, 철재절단, 절곡
땅그랑반튼 021 5935 5882

ECO INTERNATIONAL
맨홀뚜껑 & 그레이즈
0815 8989 667

PT. IMGLOBAL [PAPERYARN]
건축자재, LVR, DECO, DELUXE TILE
자카르타 021 2247-6211

설 비

PT. TOPINDO TEKNIK ABADI
General Contractor
자카르타 021 7918-1917

PT. HYUNDAI ELEVATOR INDONESIA
Maintenance & Repair, Spare Parts
자카르타 021 631-8444

PT. GEOSUNG SYSTEM INDONESIA
Multizone Airconditioner Clean room plane,
HVAC Thermo-Hygrostat, Maintenance
찐레곤 025 434-0319

KUMSUNG INDONESIA
Agen Samho Boiler
자카르타 031 664-1641

PT. MIURA INDONESIA
Best Partner for Energy, Water,
자카르타 021 2902-2342

PT. KOREA FIBLON
Lighting Innovation
자카르타 021 4280-1604

WOORIZEN INDONESIA
The Energy Saving Solution
자카르타 021 386-2228

PT.GEUM CHEON INDO
판금가공
땅그랑 021 5940-2454

PT. JM EKA PERSADA
대차, 바퀴, 팔렛, 트레이
땅그랑 021 558-6446

PT. TOP ABADI
팔렛 작업대, 대차
찌까랑 021 8990-2241

PT. HYUNDAI FACADE ALUMINIUM INDONESIA
땅그랑 021 2901-5282

PT. ECO international
맨홀(Manhole),그리스트랩
자카르타 021 2782-8878

인테리어

PT.WELLZ-IN(웰즈인)
Interior Furnitur & Architecture
자카르타 021 7884-9247

PT.DESIGN ACE
Creative Design, Interior, Architecture,
Furniture, Sign
자카르타 021 7590-8858

PT.DECOREE INTERNATIONAL
Interior, Architecture, Creative Design
자카르타 021 8066-7038

INI GALLERY
INTERIOR & FURNITURE
자카르타 021 581-4742

PT.DUNIA INDAH MAKMUR
K-Wallpaper & Wood Vinyl Flooring
찌부부르 021 8431-0753

PT. EOK ECO INDONESIA
인도어, 아웃도어, 인테리어
자카르타 021 7919-2426

PT. INDOKOR
Interior & Total Solution
찌부부르 021 8430-7773

PT. KES INDONESIA
Interior & Exhibition
땅그랑 021 558-2105

LIVING A&I
Architecure & Interior
자카르타 021 7278-0704

YOU & YOU INTERIOR
021 719-1285

포워딩

F1 LOGIX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797 6237

PT. ACE MULTITRANS CARGO
International Air and Seal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260 4233

PT. DUNIA TRANSPORTASI LOGISTIK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자카르타 021 4287-0098

(주)소리항공
PT.BINTANG JAYA TRANS
자카르타 0851 0046 3552

PT. WIRAWAN KAWAN SEJAHTERA (WIKASA)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8379-1935

PT. CAHAYA INDAH LOGISTIC
A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자카르타 021 2751-3783

PT. HANINDO EXPRESS UTAMA
건설장비 운송
자카르타 021 252-5123

KAS EXPRESS
자카르타 021 2938-2773

KPL
자카르타 021 422-9282

PT.EAST GLOBAL LOGIX
자카르타 021 8063-0760

PT.KCTC INTERNATIONAL LOGIX
자카르타 021 797-5959

PT.PENASCOP LOGISTIK TRANSNIAGE
항공/해상, 수출입통관
자카르타 021 2867-3944

PT.LogisALL Global Indonesia
자카르타 021 8066-7220

PT.JUST IN TIME
자카르타 0813 1030-4644

PT. Pertama Logistic Service
땅그랑 021 558-6446

PT. KORNET LOGISTICS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ing
항공/해상 수출입 통관
자카르타 021 4587-7350

PT.GLOBAL CHEM INTERNATIONAL
LOGISTIC & TRADING
찌까랑 021 2956 3356/57

통신, CC TV, 보안

PT. KINEZ
인터넷, 통신, CCTV
땅그랑, 띠까랑, 브카시, 스마랑, 자카르타, 보고르의
021 3002 9000

PT. GLOBAL SUMBER JAYA
CCTV/PABX/Access Control/
자카르타 021 7251-606

PT. D&B NETWORK
자카르타 021 2938-5398

PT. TELE GLOBE GLOBAL
Elec. Mechanical Eng & Construction,
브카시 021 8240-0880

컴퓨터 원
CCTV, Computer
땅그랑 021 5579-6399

HANSTAR
인터넷 CC TV
자카르타 021 2906-7229

중장비, 기계

현대건설기계
중장비
자카르타 021 5290 1493

PT.SUMA SUKSES SEJAHTERA
자카르타 021 522-2241

DAEWON CRANE GLOBAL
땅그랑 0812-1200-3344

PT. HD FORKLIFT INDONESIA
자카르타 021 2961-6497

반도 크레인
크레인 호이스트
자카르타 021 3002-7804

PT.CNB MACHINERY INDONESIA
건설관련 기계판매
땅그랑 021 5572-1090

컨설팅

OK 컨설팅
인허가, 비자, 세무, 부동산, 여행사
자카르타 021 7504-578

두왕 컨설팅
법인설립, 기업법률자문 전문
자카르타 021 2941-1043 (ext 102)

WINNERS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5012-3277

반석 컨설팅
세무회계,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9193

PT. GAON INDO JAYA
키타스, 법인설립
땅그랑 021 5579-4626

PT. BNG CONSULTING
세무, 회계
자카르타 021 522-2739~40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땅그랑 021 5577-6454

PT. JOO CONSULTANT
세무, 회계
땅그랑 021 558-1616

WOORI CONSULTING
키타스, 법인설립
자카르타 021 7918-4264

BNC CONSULTING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2912-6495/6

PERMATA FORTUNE INDONESIA
법인설립 및 키타스 진행
021 799-6182

건물관리, 용역

ECONE
건물관리, 용역, 방역, 살균,
자카르타 081 1111 8057

“집 문 열면 바닷물이 출렁” ...가라앉은 인도네시아 어촌
“지금부터는 보트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중부 자와주 프칼롱 안군 어촌 스모넛에 도착하자 길을 안내하던 가이드가 “차로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라며 같이 말했다. 보트로 갈아타 물 위를 달리며 지도 앱을 켜보니 지도상에는 육지 위를 이동하는 것으로 표시됐다. 보트로 5분 정도를 달리니 작은

모래섬이 나타났고 그 위에는 쓰러질 것 같은 벽돌집 한 채가 있었다. 스모넛 마을의 유일한 거주민 수로스(57) 씨의 집이었다. 23일(현지시간) 찾은 수로스 씨의 집은 모래섬 위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었다. 집에 들어가 바닷가 쪽으로 난 문으로 나가보니 파도가 치며 바닷물이 발끝에 튀었다. 집 문에서 바다까지는 1m도 안 되는 거리에 있었다.

만조때면 어김없이 바닷물이 집 안까지 들어와 수로스 씨 가족은 1층을 버려둔 채 집 다락과 야외에 만들어 놓은 원두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의 집은 계속해서 바닷물이 집을 들락거리면서 조금씩 부서지고 있어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 이미 옆집은 지붕이 날아갔고 벽은 무너져 낚시꾼들의 낚시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 집에서 태어났다는 수로스 씨는 스모넛 마을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70가구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다. 하지만 지금은 수로스 씨와 그의 아내, 두 자녀만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는 “어릴 때는 집에서 바다까지 1km 넘게 떨어져 있었고 바다와 집 사이에 다른 집들도 많았다”라며 “그전에도 홍수가 나

면 한 번씩 집으로 물이 들어왔지만, 어느 해부터인가 홍수 후 물이 빠지지 않더니 집터가 섬으로 변했다”라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해안선 변화를 연구해 온 한국·인도네시아 해양과학 공동연구센터(MTCRC)에 따르면 스모넛 마을의 서쪽 지역은 연평균 10m, 가장 심각한 해에는 15m씩 해안선이 다가오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는 이전 10년과 비교해 해안선 후퇴(해안선이 육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곳엔 10여 채의 집이 있었지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집안 바닥은 타일이 깨져 있었고, 바다에서 밀려온 검은 흙들로 가득했다. 인도네시아의 섬 중에서는 해수면 상승의 영향으로 해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곳들도 나오고 있다. 또 해안가 지역은 스모넛 마을처럼 반복해서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인 클라이밋 센트럴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2050년까지 인도네시아 해안에 사는 2300만 명이 해양 홍수의 위협에 직면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신문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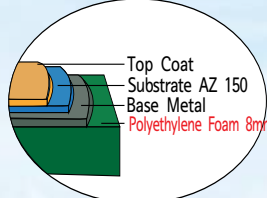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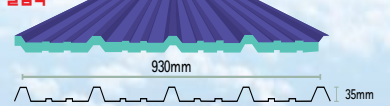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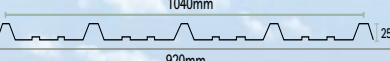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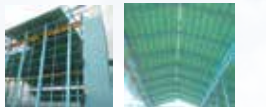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 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소리 항공

서울 ~ JABOTABEK 원데이 배송 시스템

한국, 중국, 홍콩, 베트남 (ADP 국제운송)

1588-1330

특송 쿠리어, 핸디캐리 전문업체
20년 노하우 핸디캐리, 자체 특송 쿠리어 통관 시스템

도로명 주소 :

서울시 강서구 하늘길 246, 1층 19번 (공항동, 대한항공 화물청사)

Telp : 02-2663-7373 / 2663-1947

Fax : 02-2663-1948

E-mail : support@soriair.co.kr

BINTANG JAYA TRANS

Ruko Sentra Bisnis Artha Gading Blok A6A No.16
Kelapa Gading Barat, Jakarta Utara 14240 Indonesia

Tel : +62 21 4587 4577 / +62 21 2452 1355

JAKARTA MANAGER

KIM EUK SOO M : +62 813 8075 1111

KIM KEON WOOK M : +62 812 8411 3703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인 'PT Bayan Resources TBK' 지분 중 절반을 23년까지 매각 계획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의해 최근 3년동안 순수익만 10조원 넘게 거둔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지분의 절반을 고작 7480억원에 매각하게 생겼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전5사(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남동발전)가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확인한 결과, 각 사별로 4%씩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석탄광산인 'PT Bayan Resources TBK'의 지분 중 절반을 23년까지 매각하겠다고 각각 적시했다.

발전5사가 보유한 'PT Bayan Resources TBK'가 최근 3년간 벌어들인 순수익은 10조2,536억원에 달했으며, 특히 작년 한 해에만 7조2,440억원을 벌어들였다. 그런데 발전5사가 세운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런 황금알을 낳는 알짜배기 광산을 팔기 위해 현재

매각자문사를 선정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매각하겠다고 한다. 즉, 발전5사는 각 사별로 작년에만 1조4488억원의 순수익을 거뒀는데 그 절반의 지분을 판다는 것

은, 7000억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는 지분을 고작 1/5 수준인 1496억원에 팔겠다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 "석탄·원유·가스 등 발전연료 국제시세는 연초

대비 5배 이상 급등해 올해 수익은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만 있어도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왜 팔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은 후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모든 공공기관에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제출 요구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는데, 이런 정신 나간 매각 계획을 세우게 된 경위를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기재부에서는 민간과 중부축소와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자산 매각 등을 골자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50개 모든 공공기관은 지난달 말까지 해당 가이드라인에 맞춘 혁신계획안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출처 : 뉴스저널리즘

재정난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막대한 부채로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 국영 가루다항공이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블룸버그 통신 등 주요 외신이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르판 세티아푸트라 가루다항공 최고경영자(CEO)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가루다항공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은 지급불능에 빠진 회사가 채권자에

게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루다항공의 채권자들은 한진해운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단과 100억 달러(약 14조3천억원)가 넘는 부채를 절반 수준인 51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채권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루다항공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보잉 역시 부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루다항공이 보잉에 진 채무액은 약 8억22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로 알려졌다. 아일랜드계 항공기 임대 회사 그레이라그 구스 리스는 채무 조정에 반대하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지 않자 가루다항공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한 가루다항공의 미국내 자산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 다만 미국 법원이 가루다항공의 파산보호



▲인도네시아 가루다항공 소속 여객기의 모습.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가루다항공은 이번 채무 조정이 무리되면 연내 증자 등을 통해 8억6300만 달러(약 1조23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 1. AT 시리즈 : 기존 인버터 타입 모델 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 2. FYH 시리즈 :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 3. HBH 시리즈 :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 : 021 5949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